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홍 대 식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대학생들의 사랑스타일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특징들, 이것들에 관련된 여러 배경변인들 및 사랑스타일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 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478명의 대학생들에게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Hendrick 과 Hendrick(1986)이 발견한 6개의 사랑스타일들이 발견되었지만, 미국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은 미혹애와 열정에 요인들이 더 컸고, 실용애와 계입애 요인들이 더 작았다. 사랑스타일들에 관련있을 것으로 선택된 21개의 배경변인들 중에서 14개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는 대체로 서로 유사했으며, Buss(1990) 등의 국제적 표본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들간의 차이는 15개 특징들 중의 13개에서 유의했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관련있을 것으로 선택된 21개의 변인들 중의 16개가 유의했다. 사랑스타일점수들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각 스타일은 특징들의 선호순위와 독특하게 관련 있었다. 사랑스타일들 그리고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에 대한 문화차, 성역할들, 시대변화, 개인적 상황변화들의 영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랑스타일이나 사랑의 요소로서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가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사랑이나 애정의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밀접한 관계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그 연구들이 점증되어 왔다. 사랑은 문화, 시대, 관여된 사람들의 관계의 성질(가족, 이웃, 동료 등),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서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기술과 연구가 곤란한 주제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의 애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여러 이론들과 측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시초의 집중적 노력은 Rubin(1970,

1973, 1974)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애정관계에서의 사랑과 호감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하면서, 이것들을 측정하는 두 개의 척도를 개발했다. 그리고, 그 후에 Kelley(1983)는 Rubin의 사랑척도가 필요, 관심, 신뢰 및 관용의 4개의 요소로 이루어졌고 우정척도가 존중의 한 측정치라고 시사했다.

Hatfield는 대인매력에 관한 광범한 초기 연구들을 수행했고(예; Berscheid와 Walster, 1974), 마침내 강력하고 흥분적인 열정애와 친밀한 애정인 동반자애의 두 가지 사랑의 종류를 제안했다. 그녀는 열정애의 발전에 관해서 Schachter와 Singer(1962)의 인지-

* 이 논문은 1995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에 특히 도움을 준 박군석 선생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생리적 정서이론을 이용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더 최근에 열정척도(Hatfield와 Sprecher, 1986)를 개발했으며, 열정애가 강한 긍정적 측면들(예; 흥분, 강렬성, 친밀성)과 부정적 측면들(예; 공허함, 불안, 자기회의감)에 의해 특징지어진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했다.

사랑경험이 사랑과 호감이나 열정애와 동반자애와 같이 두 개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는 상기의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요소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과 이론들이 또한 제시되어 왔다. Hazan과 Shaver(1987)는 사랑이 초기 아동기의 자식과 부모 간의 애착형태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접근은 Bowlby(1969, 1973, 1980)와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 기초해서 애착에 대한 유아의 세 가지 접근들을 신뢰형(신뢰하고 안정적인), 불안-양면 감정형(불안하고 불확실감이 있는) 및 회피형(초연하고 비반응적인)으로 구분지었다. 그들은 성인의 애정관계에서 세 가지 애정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강제선택형 문항들을 개발했으며(Hazan과 Shaver, 1987), 3가지 애착스타일들의 발생비율들이 유아기에서처럼 성인기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며, 세 종류의 성인들이 연애행양식에서 차이 있으며 애착스타일이 부모와의 관계들에 대한 심적 관점들과 이론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인의 애정경험에서 세 가지 이상의 형태나 스타일이 있다는 이론들과 주장들이 또한 제시되어 왔다. Dion과 Dion(1973)은 연애(romantic love)의 주관적 경험들을 23개의 양극 형용사문항들 상에서 평정시켜서 요인분석해서, 사랑경험의 5개 스타일들, 즉 순간적, 용의주도적, 이성적, 열성적 및 충동적 스타일들이나 접근들을 시사했다. Davis와 그의 동료들(예; Davis와 Latty-Mann, 1987; Davis와 Todd, 1982, 1985)은 Kelling(1979)에 의해 시초에 개발된 평정척도를 사용해서 애정과 우정을 비교하고 대비시켰으며, 자기들의 관계평정검사(Relationship Rating Form)에서 문항들의 7개의 군집들을 제시했고(Davis와 Todd, 1982), 그 후에 이 도구를 수정해서 6개의 하위척도

를 만들었다(Davis와 Latty-Mann, 1987). 그들이 제시한 하위척도들은 인간적 수용(viability), 친밀성, 열정, 걱정해 줌, 만족 및 갈등을 포함했다.

Lee(1973)는 수년 간의 광범위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서 대중문학과 아울러 그 자신의 연구면접들에서 기술된 사랑에 대한 태도들이나 접근들에 관한 한 유형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랑에서 3개의 주요 스타일(Eros, Ludus 및 Storge)과 이것들의 조합에 의한 3개의 주요 이차 스타일(Eros와 Ludus의 조합인 Mania, Storge와 Ludus의 조합인 Pragma 및 Eros와 Storge의 조합인 Agape)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상이한 사랑들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의 연구는 6개의 사랑스타일을 측정하는 50개 문항의 진위형 척도를 개발하게끔 만들었으며(Hatkoff와 Lasswell, 1979; Lasswell과 Lasswell, 1976) 통계분석은 6개 사랑유형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 후에 Hendrick 등(1984)은 Lasswell 부부의 문항들과 새로운 문항들을 사용하고 Likert형 척도로 만들어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 요인분석의 결과는 Lee(1973)의 이론에 대한 부분적 지지를 제공했다. 즉 이차스타일인 미혹애(Mania), 실용애(Pragma), 및 이타애(Agape)는 별개의 요인들로서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일차스타일인 열정애(Eros), 게임애(Ludus), 및 친구애(Storge)는 독립적 요인들이기보다 다른 스타일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었고 열정애요인의 존재 자체도 불분명했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은 상기의 척도를 수정해서 42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만들어서 6개 요인의 사랑스타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 사랑태도들이 성별, 인종, 이전의 사랑경험, 현재의 사랑상태 및 자존심을 포함하는 몇 개의 배경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들 6개 요인은 Tzeng(1993)의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Sternberg(1986, 1987)는 사랑에 관한 하나의 성분적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거의 모든 사랑이 3개의 성분이나 구성개념 즉 친밀성(정서요인), 열정(동기요인) 및 게임(인지요인)의 조합들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3개 요소의 가능한 조합들이 8개의

사랑유형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랑의 삼각형이론이 사랑과 호감을 포괄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것들에 관한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더욱 최근에, 여러 이론적 및 경험적 노력들을 통합시켜서 사랑의 차원들이나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Hendrick과 Hendrick(1989)은 Davis와 Todd(1982, 1985), Hazan과 Shaver(1987), Hatfield와 Sprecher(1986), Sternberg(1986, 1987) 및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척도들을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그들 자신의 사랑태도척도에서 6개 요인을 재발견했고, Hatfield와 Sprecher(1986)의 척도에서 1개 요인을 발견했으며, 사랑의 삼각형이론의 척도와 Davis와 Todd의 관계평정척도에서 각 하위척도들 간에 강한 상호연관을 발견했고, 애착스타일들이 한 개 요인에만 부하됨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하위척도들의 요인분석에서 5개의 대형요인들(super factors), 즉 열정애, 친밀성, 양면감정, 안심애착 및 실제성을 발견했다.

또한 Tzeng(1993)은 사랑관계를 취급하는 8개의 이론적 연구들에서 나온 8개 척도의 총 25개의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대표적 문항들을 뽑아서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서 그 반응들을 요인분석했다. 그 결과, 그는 5개의 대형요인(super factors)을 발견했다. 이 요인들은 전반적인 관계추진 요인, 열정과 정서적 관여요인, 관계의 안심-불안요인, 순수한 우정적 사랑요인 및 결혼과 장기적 관계의 기대가 없는 신체적 및 정신적 친밀함 요인("현대적 사랑"이라고 명명됨)이었다.

비록 Hendrick과 Hendrick(1989) 및 Tzeng(1993)의 여러 척도들을 사용한 사랑스타일들이나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있을지라도, 단일 척도상에서 다양한 사랑스타일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Hendrick과 Hendrick의 척도가 가장 훌륭한 것 같다(Hendrick과 Hendrick, 1989; Tzeng, 1993 참조).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이들의 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서, 그들이 발견한 6개의 사랑스타일이 미국 문화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아마 사랑의 현상이 인류 그리고 문명화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일 것이며, 따라서 한국인에서도 미국인에서 발견된 스타일들이 마찬가지로 발견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 행동들과 정신현상들 그리고 특수하게 사랑스타일과 그 인식이 문화요인에 의해 영향받으므로, 사랑스타일들의 비중이나 중요성에서 양쪽 문화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집단주의나 가족주의 그리고 인정(또는 정)주의가 지적되어 왔다(예; Hofstede, 1984; 최상진, 1993). 따라서 사랑스타일들 중에서 합리주의스타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용애와 게임애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인정 또는 정이 강조되는 스타일로 간주되는 미혹애와 열정애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높을 것이며, 순수한 형태의 사랑인 이타애와 친구애에서는 양쪽 문화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성간의 사랑은 성관계, 만족 및 사랑에 대한 개입이나 유지, 특히 결혼과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Hendrick과 Hendrick(1987)은 사랑스타일들과 성태도척도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해서, 사랑스타일과 성태도들 간의 몇 개의 관계를 발견했다. 즉 열정애는 성적 관행준수와 성적 친밀성과 상관있었고, 게임애는 성적 허용성과 성적 수단성과 상관있었고, 이타애는 성적 친밀성과 상관있었고 성적 수단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친구애, 실용애 및 미혹애는 성적 태도들과 비교적 상관이 적었다. 사랑스타일과 데이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가 Hendrick과 Hendrick 및 Adler(1988)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남자들의 만족과 열정애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 게임애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여자들의 만족과 열정애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미혹애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랑스타일과 결혼이나 결혼상대에 대한 태도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현대 결혼의 상당한 부분이 이성교제(또는 연애)에서부터 결혼으로의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성관계나 사랑스타일에 따른 결혼과 결혼후 부부관

계상태 사이의 관계는 호기심이 생기는 주제일 것이다. 그리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선택이며, 이것은 사랑스타일이 또한 배우자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랑스타일과 연관해서, 대학생들이 결혼상대와 연애상대로서 상대방의 어떤 특징들을 중요시하거나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 취급된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의 지각 간의 관련이나 상관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세번째 목적이다.

배우자선택의 선호들에 관한 연구들은 이성으로부터 열렬하게 구애받거나 무시당하는 이유들과 남성과 여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끔 만드는 자질들 상에서의 성차들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가족사회학 연구들에서 보편적이어 왔다(Powers, 1971). 사람들의 배우자선택에서 작용되는 요인들이나 준거들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은 사회적 교환모형들과 사회적 진화모형들이다. 사회적 교환모형들(예; Hatfield 등, 1985; Homans, 1961; Thibaut와 Kelley, 1959)은 경제학적 모형들로서 사람들이 어떤 상대로부터 얻게 될 최선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움, 지능, 부(富),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가치있는 특성들의 정도에 따라 대체적인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선의 가치를 얻고자 하면서, 자신의 자산과 상대방의 자산을 교환한다. 이러한 모형들과 일치해서, 사회적 자산을 많이 가진자들은 적게 가진자들보다 잠재적 상대에게서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Camereon 등, 1977; Harrison과 Saeed, 1977;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 사회적 교환모형들은 또한 어떤 특수한 자원의 가치가 문화들 간에 다르다고 가정한다. 문화들은 기본 자산들에 대해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며, 따라서 배우자선택에 중시되는 자원들이 서로 다르게 된다(Camereon 등, 1977).

사회진화적 모형들은 사회적 교환모형들처럼 인간이 다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지만(Kenrick

과 Trost, 1989), 사회적으로 규정된 보수들의 교환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유전적 적합성(즉, 자식의 생존가능성을 직접 높을 수 있는 적응적인 유전자들의 소유가능성)이나 자손의 성공적 번식가능성(즉, 자식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나 성향의 소유가능성) 때문에 선택된 진화적 기제들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본다(Buss, 1989; Kenrick과 Trost, 1989; Sadalla, Kenrick 및 Vershure, 1987).

초기의 사회학적 발견들과 현대의 사회심리학적 발견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매력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반면에, 여성이 남성보다 비신체적 요인들(예;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선택의 선호들의 성차는 위에서 제시된 모형들에 의해서 약간 달리 설명되고 있다. 사회적 교환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성차들을 중시하지 않고서 양성 간의 공통점들에 초점을 두는데, 발견된 성차들에 대해서 문화들 간의 차이있는 사회화압력들(즉, 사회가 남성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들과 여성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들이나 적절한 성역할규정들)의 측면에서 설명해 왔다(예; Brehm, 1985; Camereon 등, 1977). 따라서 문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선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Rosenblatt, 1974).

이와 대비되게, 사회적 진화모형들은 배우자선택의 선호들의 성차들에 더 직접 초점을 두어 왔다(예; Buss, 1989; Hinde, 1984; Kenrick과 Keefe, 1992; Kenrick, Sadalla, Groth 및 Trost, 1990; Sadalla 등, 1987; Symons, 1979; Townsend, 1989). 이들 진화론자는 배우자선택의 선호들의 몇 가지 성차들이 문화들 간에 보편적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성차를 성적 선택의 압력들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여성은 자신의 자식에 대해 임신과 수유 등을 통한 부모적 투자(parental investment)가 더 많고, 남성은 유일한 투자가 교미행위에 한정되는 경우들이 흔해서 부모적 투자가 더 적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성급한 배우자결정이 많은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남성상대를 평가함에 있어서 더 선택적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조건이 자식의 생존에 항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젊음, 건강 및 좋은 신체조건에 신호들에 비교적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식에 대한 인간 남성의 투자들은 흔히 더 간접적이며, 여성에 대해서 자식에게 자원을 기여할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진화적 모형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받아 왔다. Feingold(1990)는 신체매력에 초점을 두어 배우자선택 선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매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고 결론지었다. 그 후에 Feingold(1992)는 비신체적 특징들에 초점을 두어 배우자선택 선호들에 관한 여러 질문지연구들과 개인광고들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야망성, 성품 및 지능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자식의 생존에 무관한 특징들(예; 유머감, "성격")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Sedalla와 그의 동료들(1987)의 연구들은 여성이 비언어적 지배를 나타내는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의 지배성이 남성의 매력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Buss(1989, 1990)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부(富)에 대한 여성의 더 큰 강조와 여성의 신체매력에 대한 남성의 비교적 더 큰 강조에서의 문화적 보편성을 지적하고 발견했다. Kenrick와 Keefe(1992)는 나이 든 남성이 광범한 문화들과 경제계층들에서 더 젊은 여성을 추구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선택 선호들의 비중이나 평정치가 더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Buss와 Barnes, 1986; 또한 한국인 남녀대학생에 관한 Brown, 1994의 연구를 참조할 것).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선호들에서 뚜렷한 유사성도 발견되었다(예컨대, Buss와 Barnes, 1986의 자료에서 선호순위에서 상위 10개 중의 7개가 양성이 동일했다).

배우자선택 선호들에 관한 연구들에서 성별요인 이외의 하나의 관심있는 요인은 관계에 대한 관여수준이다. 관계에 대한 관여수준(즉, 단 한번의 데이트, 성관계, 고정적 데이트, 결혼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Kenrick, Sadalla, Groth 및 Trost(1990)와 Kenrick,

Groth, Trost 및 Sadalla(1993)의 연구들은 하룻밤의 정사나 성관계 수준들에서 가장 큰 성차를 발견했고 단 한번의 데이트나 결혼 수준들에서 가장 적은 성차를 발견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관여수준의 증가에 따라 요구조건 수준이 증가되었으며, 여자는 고정적 데이트의 수준에서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준거를 보였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성상대에 대해 더 낮은 요구수준들을 갖고 있었지만, 장기적 파트너에 대해서는 여자만큼 선택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할 때, 이성상대의 선택선호들이 그 밖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 예상된다. 성별이나 관여수준 이외에도 학년, 연령, 종교, 사랑상대와의 관계의 특징들, 가정분위기, 부모와의 관계, 자기에 대한 태도 및 자신의 신체매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관계적, 가정환경적 변인들과 자기개념들이 이성상대의 선택선호들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가장 많은 사랑의 차원이나 스타일을 단일 척도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척도를 사용해서 한국 대학생들의 사랑스타일을 평가하고 미국 대학생들의 사랑스타일과 비교하고 여러 개인적 및 관계적 변인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2)결혼상대와 연애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 (3)사랑스타일들과 결혼상대 및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들 간의 상호관련을 알아보는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서울지역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212명)과 광운대학교 학생들(36명), 그리고 전북대학교 학생들(180명)과 대전의 한남대학교 2부 학생들(86명)이 본조사의 질문에 집단적으로 응답했다(따라서 서울지역 대 지방지역의 참가자 백분율은 각각 48% 대 52%이었다).

측정치들

본연구에서 사랑스타일들과 결혼상대와 연애상대의

바람직한 특징들 그리고 이것들에 연관된 것으로 가정된 여러 배경특징들을 취급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1) 사랑스타일들의 측정: 사랑스타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Hendrick과 Hendrick(1986)이 사용한 척도(총 47개 문항)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었다. 척도의 문항들에 대한 반응은 “매우동의한다”에서 “매우 반대한다”에 이르는 5점척도에서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도록 했다. 척도에 대한 지시는 Hendrick부부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사랑하는 인물들로서 가능한 한, 현재의 상대를 염두하도록 했으나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상대”를 염두하거나 “가장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측면에서” 반응하도록 했다.

(2) 원하는 결혼상대와 연애상대의 특징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순위를 짓기 위해서 Buss(1990)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해서 사용했다. 사용된 특징들은 “대학졸업자임, 돈벌이 능력이 좋음, 집안이 부유함, 건강함,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 친절하고 이해성있음, 창조성있고 예술적임, 종교적임, 순결함(즉, 성경험이 없음), 성격이 태평함(또는 느긋함), 재미있는 성격, 집안일을 잘함, 자녀를 갖기를 원함, 지적임(또는 똑똑함) 및 신체적 매력 있음의 15개 항목이었다. 참가자들은 “당신의 결혼상대로서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의 순위”와 “당신의 연애상대로서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의 순위”를 별개로 1번에서 15번까지 순위지었다.

(3) 참가자들의 배경특징들: 질문지에서 취급된 주요 측정치들에 관련된 것으로 가정된 몇 개의 배경특징들이 질문되었다. 이것들에는 학년, 성별, 연령, 종교, 출생순위, 결혼상태, 사랑경험수, 현재 이성 상대의 유무, 지난달 데이트수, 고정적 이성친구의 유무, 성경험유무, 결혼예정연령, 동성친구수,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 태도, 자신의 신체적 매력도,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집안분위기의 행복도 및 사랑태도척도상에서 반응했던 인물의 종류(현재의 상대, 가장 최근의 상대 및 가상적 상대)가 포함되었다.

질문지는 1994년 2학기 중에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결 과

표본특징들

피험자들은 각 배경질문의 문항에 대해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배경특징들의 백분율의 기초에서 차이가 있었다. 피험자들은 남자가 53%(252명)이고 여자가 47%(226명)이었다. 1학년생들이 12%(58명), 2학년생들이 39%(182명), 3학년생들이 28%(132명) 그리고 4학년생들이 21%(96명)이었다. 연령의 면에서, 18-19세가 10%(48명), 20-21세가 36%(175명), 22-23세가 24%(117명), 24-25세가 19%(92명) 그리고 26세 이상이 11%(51명)이었다. 사랑경험(상대)수에서, 없음이 22%(105명), 1명이 31%(149명), 2명이 23%(113명) 그리고 3명 이상이 24%(116명)이었다. 현재 사랑상대가 있는 학생들이 48%(231명)이었고 없는 학생들이 52%(252명)이었다. 둘이 고정적으로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이 36%(173명)이었고 없는 학생들이 64%(309명)이었다. 지난달에 데이트를 갖었던 학생들이 59%(276명)이었고 갖지 않았던 학생들이 41%(194명)이었다.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26%(123명)이었고 없는 학생들이 74%(359명)이었다. 결혼예정연령은 26세 이하가 19%(88명), 27-28세가 39%(180명), 29-30세가 29%(131명) 그리고 30세 이상이 13%(58명)이었다. 그 밖의 배경변인들(집안분위기, 형제자매수, 남자형제수, 여자형제수, 자신의 신체매력도,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자기에 대한 일반태도 등)의 특징은 뒤의 관련 주제들에서 제시될 것이다.

사랑스타일들의 요인구조와 척도분석

47개의 문항이 상호상관되고 요인분석되었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이 수행한 바와 같이, 대각선에 1을 넣고 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해서 몇 개의 가능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의 해답들이 검토

표 1. 사랑태도문항들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요인부하

문항	\bar{X}	SD	요인부하
열정애(Eros)			
1. 나의 애인과 나는 처음 만난 직후에 서로 매력을 느꼈다.	2.54	1.08	.53
2. 나의 애인과 나는 둘이서 체질적으로 잘 어울린다.	2.40	1.04	.65
3. 우리의 사랑행위는 매우 강렬하고 만족을 준다.	2.86	1.18	.68
4. 나의 애인과 나는 하늘이 정해 준 짝이라고 생각한다.	2.84	1.21	.54
5. 나의 애인과 나는 매우 신속하게 육체적으로 빠져들었다.	3.70	1.28	.54
6. 나의 애인과 나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2.48	1.01	.53
7. 나의 애인은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멋있음에 대한 나의 이상적 기준들에 합치된다.	2.77	1.08	.53
8. 나의 애인과 나는 다소 신속하게 감성적으로 빠져들었다.	2.66	1.11	.56
게임애(Ludus)			
9. 나는 나의 애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나 자신의 심적 자세에 관해서 계속 약간 불확실하게 느끼게끔 만들려고 노력한다.	2.98	1.21	.38
10. 나는 나의 애인이 나에게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87	1.17	.44
11. 나는 때때로 두 명의 나의 애인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끔 만들어야만 되었다.	3.77	1.42	.62
12. 나는 애정관계들을 꽤 쉽고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3.67	1.24	.46
13. 나의 애인은 내가 실제로 다른 이성들과 연애관계들을 맺어온 사실들 중의 몇 가지를 알게 되면, 화를 낼 것이다.	2.90	1.33	.40
14. 나의 애인이 나에게 너무 많이 마음을 두게 될 때,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서고 싶다.	2.50	1.21	.43
15. 나는 몇 명의 상대들과의 사랑의 게임을 즐긴다.	4.36	1.06	.67
16. 나는 나의 애인이 내가 실제로 다른 이성들과 연애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까봐 다소 두렵다.	3.91	1.17	.56
친구애(Storge)			
17. 나는 내가 한동안 실제로 상대를 사랑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60	1.30	.40
18. 나는 이전에 나와 애정관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과 계속 좋은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	3.26	1.24	.46
19. 가장 훌륭한 사랑은 장기적인 친구관계로부터 나온다.	2.51	1.20	.64
20. 나는 나의 애인과 내가 사귀는 동안에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69	1.28	.56
21. 사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감정상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일종의 깊은 우정이다.	2.78	1.27	.58
22. 나의 가장 만족스러운 애정관계들은 좋은 친구관계에서 발전되어 왔다.	2.78	1.22	.68
23. 나는 우리 둘 간에 언제 친구관계가 끝나고 사랑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2.77	1.28	.57
24.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제까지나 친구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3.02	1.22	.56

문항	\bar{X}	SD	요인부하
실용애(Pragma)			
25.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 적합한가를 숙고한다.	2.42	1.25	.62
26. 나는 나의 인생을 주의깊게 계획세우고 나서 어떤 애정 상대를 고른다.	3.13	1.20	.70
27. 자기 자신과 비슷한 개인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2.41	1.14	.43
28. 애정상대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주로 고려할 사항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3.23	1.09	.69
29. 애정상대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그 사람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가이다.	2.47	1.08	.69
30. 애정상대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사항은 그 사람이 나의 장래 경력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70	1.14	.64
31. 나는 어떤 이성과 깊게 사귀기 이전에, 그 사람의 유전적 배경이 우리 두 사람이 자식을 갖게 될 경우에 나의 것과 얼마나 잘 조화되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3.48	1.08	.63
미혹애(Mania)			
32. 나의 애인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되어 가지 않을 때에 나는 울화가 치민다.	2.34	1.09	.51
33. 나의 애정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매우 의기소침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다.	3.56	1.27	.58
34. 때로는 나는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	2.37	1.14	.68
35. 나의 애인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는 나는 병이 난 것 같이 느낀다	2.71	1.14	.79
36. 사랑을 느낄 때, 나는 무슨 일이든 간에 주의를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2.81	1.14	.64
37. 나의 애인이 어떤 다른 이성과 함께 있다고 의심이 들게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2.86	1.12	.68
38. 만일 나의 애인이 한동안 나를 등한시한다면, 나는 때로는 상대방의 주의를 도로 끌기 위해서 바보같은 짓들을 하기까지 한다.	3.18	1.22	.61
이타애(Agape)			
39. 나는 나의 애인이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든다	2.08	.92	.66
40. 나는 나의 애인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느낀다.	2.26	1.02	.78
41. 나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나의 애인의 행복을 우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2.91	1.01	.73
42. 나는 대개 나의 애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소망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다	3.41	1.10	.68
43.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2.92	1.32	.69
44. 나의 애인이 나에게 화를 낼 때에도, 나는 계속 상대방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3.22	1.11	.71
45. 나는 나의 애인을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것이다.	2.78	1.15	.84
46. 나는 나의 애인이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도우려고 항상 노력한다.	1.95	.85	.60

* 점수가 작을수록 더 강한 동의를 나타냄. N=487.

되었다. 6개 요인해답이 다른 해답들에 비해서 다른 요인들 상의 부하들이 0에 가까운 것들이 가장 많았고, .30 이상으로 다른 요인들 상에 부하된 것이 단지 2개 문항으로 나타나서 가장 적합한 해답으로 선택되었고 따라서, Hendrick Hendrick(1986)의 6개 요인들이 재확인 되었다(표 1 참조). .30 이상으로 2개 요인들 상에 부하된 문항은 열정애요인에 주로 부하된 4번과 5번 문항이었는데, 4번 문항은 이타애요인에 .32의 부하를 보였고 5번 문항은 친구애에 -.33의 부하를 보였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친구애 요인을 측정하는 “나는 먼저 상대를 좋아한 후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다”는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30 이상의 부하를 보이지 않아서 표 1에서 제거되었다. 회전 전에, 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총변량의 백분율은 열정애(7.3), 게임애(3.8), 친구애(4.8), 실용애(6.3), 미혹애(7.7) 및 이타애(12.9)이었고, 6개 요인이 총변량의 42.8%를 설명했다. 설명된 총변량은 Hendrick과 Hendrick(1986)의 2개의 자료에서 나타난 각각 44.2%와 43.1%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변량들은 Hendrick과 Hendrick(1986)의 미국 대학생들에서 얻은 변량들과 대비되었다. 설명된 변량의 면에서, 이타애와 친구애의 요인들에서는 매우 비슷했지만, 미혹애와 열정애의 요인들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2%이상 더 많았

고, 실용애와 게임애의 요인들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각각 약 2%와 4% 더 적었다.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들은 매우 뚜렷한 결과들을 보였다. 즉 각각의 문항은 해당 요인 상에서 가장 큰 부하를 보였고 나머지 요인들 상에서는 낮은(흔히 0에 가까운) 부하를 보였다. 표 1의 마지막 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열정애(8개 문항), 미혹애(7개 문항) 및 이타애(8개 문항) 요인들에서 모든 문항들이 .50 이상의 부하를 보였고, 친구애(8개 문항), 실용애(7개 문항) 요인들에서는 각각 2개와 1개 문항이 .50 이하였다. 게임애(8개 문항) 요인 상에서, 3개의 문항이 .50 이상의 부하를 보였는 반면에 5개 문항이 .50 이하의 부하를 보였다.

6개 요인의 척도들의 각각에 대한 신뢰들의 지표인 alpha계수가 계산되었다(표 2 참조). alpha계수들은 Hendrick 부부(1986)의 것들과 매우 비슷한 수치이었는데, 게임애요인을 제외하고서 모두 .70 이상이였다.

주성분 요인분석법에서 요인들은 서로 직교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각 요인의 문항총점들이 실제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척도들의 독립성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6개 척도들의 각각에 대한 개인의 총점이 계산되었고 상관되었다(표 3 참조).

6개 척도들은 서로 매우 낮기는 하지만 많은(15개

표 2. 사랑척도들의 신뢰도(alpha)

	N	열정애 (8)	게임애 (8)	친구애 (8)	실용애 (7)	미혹애 (7)	이타애 (8)
원변인들	465	.78	.64	.70	.76	.78	.88
표준화변인들	465	.78	.64	.70	.76	.78	.88

()안의 수치는 문항수임.

표 3. 사랑척도 총점들 간의 상관

척도	게임애	친구애	실용애	미혹애	이타애
열정애	-.04	-.12	.09*	.18**	.35**
게임애		.07	.14*	.12**	-.23**
친구애			.10*	-.09**	.04
실용애				.05	.00
미혹애					.29**

N=475 - 478임. * p<.05, **p<.01.

상관들 중의 10개) 유의한 상관들을 보였다. 6개 요인들 중에서 이타애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열정애요인과는 .35, 미혹애요인과는 .29, 그리고 게임애요인과는 -.23의 상관을 보였다. 그 밖의 요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은 모두 .20 이하였다. 따라서 요인들 간의 상관의 변량이 최대로 1.3% 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요인들 간의 독립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면, Hendrick와 Hendrick(1986)의 사랑태도들이나 사랑스타일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한국 대학생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척도들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반응은 그들과 동일한 6개 요인을 보였고, 각 척도의 문항들도 해당 요인 상에서 가장 높은 부하를 보였으며, 적절한 신뢰도수준과 척도 간의 상당한 독립성을 보였다. (본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문항들을 사용해서, 각 척도의 문항이 8개나 7개가 되었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각 척도당 7개 문항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배경변인들과 사랑스타일들 간의 관계

Hendrick와 Hendrick(1986)의 연구에서처럼, 상이한 사랑스타일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가정들을 다소 더 조리있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들의 연구보다 더 많은 피험자들의 배경들에 대한 특수한 질문들이 본조사에 포함되었다. 각각의 배경변인들이 독립변인으로서 그리고 각각의 사랑스타일의 총점들이 종속변인으로서 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유의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각 변량분석에 대한 F비와 평균치들이 표 4에 제시되었다. 평균치들은 문항들의 합계이고 문항수들이 7개나 8개이므로, 사랑스타일들 간의 평균치들의 비교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배경변인 별로 결과들이 검토되고 몇 개의 변인들에서는 Hendrick와 Hendrick(1986)의 결과와 비교될 것이다.

성별 남자가 여자보다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더 높았으며, 나머지 4개의 태도들에서는 남녀차가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게임애적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친구애적이고, 실용애적이고, 미혹애적이라는 Hendrick와 Hendrick(1986), 그리고 Hendrick, Hendrick 및 Adler(198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년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학년 간 차이가 유의했다. 이 두 개의 태도들에서 4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태도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평균치들의 추세는 1학년생들에서 낮았다가 2학년생들에서 높았고, 그 다음에 다시 3학년생들에서 낮았다가 4학년생들에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 세 개의 사랑태도들에서 연령간 차이가 유의했다.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평균치들 간의 차이의 양상이 매우 유사했는데, 24세 이상의 학생들이 23세 이하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게임애에서는 18-19세에서 높았다가 20-23세에서 낮았다가, 24-25세에 다시 높아지고 26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Hendrick와 Hendrick(1986)의 연령 간 차이가 없었던 것과 차이있는 것이다.

종교 세 개의 스타일들에서 전체 종교집단들 간에 차이가 유의했지만,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형제자매수 미혹애에서 6명 이상 집단이 5명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서, 사랑스타일에서 범주들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형제수 이타애에서 만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일차적으로 점수가 더 높았다.

여자형제수 실용애에서 여자형제수가 없거나 1명인 집단들보다도 3명 이상의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이타애에서의 남자형제수와는 반대로,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일차적으로 점수가 더 낮았다.

집안 분위기 미혹애에서 “매우 불행하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다른 범주들에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을 제외하고서, 사랑스타일들에서 범주들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경험한 사랑상대수 열정애에서 지금까지의 사랑상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들보다

표 4. 선정된 배경변인별 사랑태도들의 평균치와 F비

변인	N	사랑 태도들					
		열정애	게입애	친구애	실용애	미혹애	이타애
성별		F=28.24**	F=.18	F=.01	F=.06	F=.42	F=86.67**
남자	252	21.00b	26.90	22.34	19.89	19.72	19.19b
여자	226	23.70a	27.11	22.38	19.77	20.04	24.12a
학년		F=3.13**	F=1.47	F=1.71	F=.85	F=1.43	F=10.16**
1	58	22.28ab	25.69	20.84	19.26	19.12	22.41ab
2	182	21.66ab	27.28	22.53	20.14	19.50	20.89bc
3	132	23.22a	27.20	22.41	20.14	20.46	23.64a
4	96	21.21b	26.81	22.92	19.41	20.31	19.40c
연령		F=5.89**	F=2.65*	F=1.81	F=1.02	F=2.38	F=7.96**
18-19	48	23.46a	25.79b	20.54b	20.17	20.92a	24.25a
20-21	175	22.67a	27.43ab	22.25ab	20.10	20.09ab	22.33ab
22-23	117	23.22a	27.74a	23.09a	20.04	20.34ab	22.01b
24-25	92	20.26b	25.90b	22.59a	18.95	18.54b	19.39c
26 이상	51	20.65b	26.59ab	22.73a	19.35	19.24ab	19.20c
종교		F=2.96*	F=.44	F=.56	F=4.39**	F=.65	F=2.40*
없음	262	21.92b	26.91	22.14	20.59a	20.11	21.62ab
개신교	129	21.82b	27.19	22.49	18.54a	19.29	20.63ab
가톨릭	52	23.69b	26.75	22.56	20.12a	19.81	21.98ab
불교	32	22.53b	26.91	23.38	18.47a	20.25	24.22a
기타	5	28.80a	24.20	24.60	18.00a	18.40	19.20b
형제자매수		F=.38	F=.31	F=.90	F=.79	F=2.72*	F=.83
1	11	21.00	26.27	22.82	21.54	20.09ab	22.73
2	89	22.70	26.99	22.11	20.36	19.99ab	22.30
3	167	22.04	26.71	23.01	19.80	20.02ab	21.58
4	108	22.00	27.14	22.06	19.53	19.13ab	20.78
5	61	22.25	27.57	22.20	19.77	21.46a	22.02
6이상	42	22.79	26.86	21.19	18.90	17.88b	20.83
남자형제수		F=1.22	F=1.06	F=1.46	F=.64	F=.93	F=6.75**
0	45	22.98	25.73	23.93	18.93	19.24	23.71a
1	171	22.67	27.28	21.98	19.95	20.35	22.59ab
2	173	22.06	26.99	22.54	20.03	19.68	20.90bc
3 이상	95	21.47	26.80	22.21	19.60	19.44	19.74c
여자형제수		F=1.20	F=2.62	F=.26	F=3.75*	F=.57	F=3.15*
0	69	21.99	25.41b	22.36	20.19a	19.96	20.85b
1	172	22.07	27.48a	22.69	20.61a	19.69	20.70b
2	125	21.83	26.94a	22.33	18.65ab	20.30	21.78ab
3 이상	118	23.09	27.06a	22.11	19.67b	19.45	22.87a
집안 분위기		F=2.94*	F=1.33	F=.75	F=5.02**	F=3.12*	F=.86
매우 행복	76	21.28a	27.59	21.88	17.96a	20.68b	21.20
다소 행복	235	21.81a	27.11	22.22	19.60a	19.86b	21.29
보통	129	23.54a	26.10	22.88	21.05a	18.92b	21.54
다소 불행	30	22.33a	27.43	22.90	20.90a	19.53b	23.37
매우 불행	4	25.50a	25.25	19.50	21.50a	26.75a	23.25

변인	N	사랑 태도들					
		열정애	게임애	친구애	실용애	미혹애	이타애
사랑상대수		F=7.14**	F=8.25**	F=1.63	F=1.51	F=5.16**	F=2.61
0	105	23.12a	26.59b	21.48	19.12	21.42a	23.04a
1	149	23.24a	28.64a	23.07	20.29	19.84b	21.32b
2	113	22.09a	26.30b	22.28	20.18	19.64b	21.14b
3이상	116	20.30b	25.78b	22.49	19.40	18.65b	20.91b
현재의 사랑							
상대유무		F=15.98**	F=14.12**	F=2.05	F=4.31*	F=.04	F=6.85**
있음	231	21.17a	27.88b	22.79	20.30a	19.80	20.77a
없음	252	23.21b	26.12a	22.04	19.33b	19.89	22.27b
고정사랑							
상대유무		F=3.41	F=17.68**	F=.20	F=.66	F=1.18	F=1.76
있음	173	21.59	28.27b	22.55	20.06	20.21	21.05
없음	309	22.59	26.22a	22.31	19.66	19.66	21.84
지난 달의							
데이트 빈도수		F=1.31	F=1.05	F=4.22**	F=1.03	F=.77	F=1.68
1-2	64	22.84	26.98	20.98b	18.78	20.51	22.38ab
3-4	61	22.04	27.57	23.16ab	19.75	20.26	20.64b
5-6	52	22.69	26.54	21.00b	20.36	19.65	21.19ab
7-10	39	21.49	26.64	23.28ab	20.49	19.15	23.44a
11이상	58	20.64	28.45	24.50a	20.22	19.14	20.76b
성경험 유무		F=29.84**	F=2.74	F=6.04	F=.32	F=3.96*	F=7.35**
있음	123	19.89a	26.28	23.49	20.02	19.02a	20.24a
없음	359	23.04b	27.19	22.03	19.71	20.13b	22.01b
사랑태도							
척도에서							
사용된 상대		F=4.66**	F=11.38**	F=2.43	F=1.59	F=12.16**	F=3.61*
현재 상대	197	21.26b	28.14a	22.81	20.01	20.25a	20.87b
최근 상대	154	22.73a	25.51b	22.56	20.09	18.18b	21.20b
가상적 상대	105	23.09a	26.98a	21.34	19.03	21.26a	22.87a
자기에 대한							
일반적 태도		F=5.07**	F=2.14	F=.49	F=2.93*	F=2.47*	F=2.74*
매우긍정적	82	20.54b	27.70	22.04	18.83a	20.71a	19.78a
다소긍정적	246	22.07ab	27.29	22.26	19.94a	20.06a	22.01a
보통	81	22.68ab	26.05	22.93	19.91a	19.73a	21.26a
다소부정적	69	24.52a	26.04	22.90	21.56a	18.26a	22.46a
매우부정적	6	20.67b	24.50	21.17	19.00a	17.50a	18.50a
자신의							
신체 매력도		F=7.38**	F=.65	F=.57	F=4.02**	F=1.28	F=2.01
매우매력적	12	16.08c	26.92	22.67	15.42b	18.58b	19.33b
다소매력적	186	21.38b	26.47	22.27	19.35a	19.55b	21.74b
보통	224	22.94ab	27.31	22.66	20.10a	19.82b	21.41b
다소매력없음	42	23.43ab	26.76	21.50	21.33a	20.07ab	20.40b
매우매력없음	10	26.00a	26.47	20.90	21.50a	23.20a	25.90a

주: 평균치들의 수치가 작을수록 더 강한 동의를 나타냄.

* p < .05, ** p < .01.

유의하게 더 높았고, 이타애에서는 사랑상대수가 1, 2, 3인 이상인 집단들이 0인 집단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게임애에서는 사랑상대수가 1명인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열정애, 이타애 및 미혹애에서 사랑상대수가 0인 집단보다 1명에서 3-5명까지의 집단들이 더 높았던 Hendrick와 Hendrick(1986)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게임애에서는 이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친구애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현재 사랑상대의 유무 현재 사랑상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게임애와 실용애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Hendrick와 Hendrick(1986)의 연구들 중에서 열정애, 이타애 및 게임애의 결과들과 일치되었으며, 그들의 친구애, 실용애 및 미혹애의 결과들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고정적 사랑상대의 유무 현재 둘 만이 고정적으로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게임애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낮았다.

지난 달의 데이트 빈도수 1-2회와 5-6회 집단들보다 11회 이상의 집단이 친구애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성경험 유무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열정애, 미혹애 및 이타애 모두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사랑척도에 대한 반응에서 사용된 상대의 성질 사랑태도척도에 대한 지시에서 세 종류의 사랑상대(즉, 현재의 상대, 최근의 상대 및 가상적 상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들 세 집단 간의 사랑태도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열정애에서 현재의 상대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고, 이타애에서는 현재의 상대와 최근의 상대 집단들이 가상적 상대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게임애와 미혹애에서는 최근의 상대집단이 다른 두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자기에 대한 일반적 태도 열정애에서 자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집단과 매우 부정적인 집단이 다소 부정적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Hendrick과 Hendrick(1986)의 결과들 중에서 열정애에서는 일치되었고, 게임애, 실용애 및 미혹애에서는 일치되지 않았다.

자신의 신체매력도 지각 열정애에서, 신체매력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일차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 실용애에서, 매우 매력있다고 지각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점수가 높았던 반면에, 이타애에서는 매우 매력없다고 지각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낮았다.

응답자들의 출생순위,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와의 관계의 긍정성 및 어머니와의 관계의 긍정성, 지난 달의 데이트 유무, 결혼예정연령 및 동성의 친한 친구수의 변인들은 사랑태도점수들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결혼여부 변인은 미혼자가 너무 많아서(98%) 자료처리에서 취급되지 않았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 특징들의 순위들과 순위 평정치들 간의 차이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15개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에 대한 대학생들의 순위점수들의 평균치와 두 종류의 상대의 평균치들 간의 차이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연애상대의 최상 5위까지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은 친절하고 이해성있음, 신체적 매력이 있음, 재미있는 성격, 지적임(또는 똑똑함) 및 건강함이었으며, 최하 5위까지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은 순결함(즉, 성경험이 없음), 유전적 가문이 좋음, 집안일을 잘함, 종교적임 및 자녀들을 갖기를 원함이었다.

결혼상대의 최상의 5위까지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은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건강함, 지적임(또는 똑똑함), 재미있는 성격 및 신체적 매력이 있음이었으며, 최하의 5위까지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은 성격이 태평함(또는 느긋함), 집안이 부유함,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 자녀들을 갖기를 원함 및 종교적임이었다. 따라서 5개의 최상위의 바람직스러운 특징들은 연애상대와 아울러 결혼상대에 대해 비록 순위들이 바뀌었을지라도 동일했으며, 연애상대와 아울러 결혼상대에 대해 자녀를 갖기를 원함, 종교적임 및 유전적으

로 가문이 좋음의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Buss 등(1990)의 국제적 표본에서 얻은 결과들과 비교될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던 친절하고 이해성있음은 그들의 국제적 표본과 일치되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에서 각각 3, 4위를 받았던 지적임(또는 똑똑함)과 재미있는 성격은 그들의 표본에서 각각 2, 3위를 받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에서 2위를 받았던 건강함은 그들의 표본에서 4위를 받았다. 한편, 한국 대학생들에서 5위를 받았던 신체적 매력기 있음은 그들의 표본에서 6위를 받았으며, 그들의 표본에서 5위를 받았던 성격이 태평함은 한국 대학생들에서 11위의 낮은 순위를 받았고, 그들의 표본에서 중간정도의 순위를 받았던 자녀들을 갖기를 원함은 한국 대학생들에서 최하에서 두번째인 14위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상위 4개 특징들은 본 연구와 Buss 등(1990)의 자료에서 일치되었으며, 유전적 가문이 좋음과 종교적임은 양쪽 연구들에서 가장 낮은 순위들에 속했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순위들은 대체적으로 일치되었지만, 15개 특징들 중에서 대학졸업자임과 종교적임을 제외한 13개의 특

징들에서 차이가 유의했다. 결혼상대보다 연애상대에서 순위가 더 상위이었던 특징들을 순위의 차이의 크기의 순에 따라 살펴보면, 신체적 매력기 있음, 재미있는 성격, 집안이 부유함, 창조적이고 예술적임, 성격이 태평함 및 돈벌기 능력이 좋음이었다. 연애상대보다 결혼상대에서 순위가 더 상위이었던 특징들은 순위의 차이의 크기의 순에 따라, 집안일을 잘함, 건강함, 자녀들을 갖기를 원함, 순결함(또는 성경험이 없음), 지적임(또는 똑똑함),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 및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이었다. 전체적으로 차이있는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연애상대에서는 결혼상대에서보다 “즐거운 관계”를 갖는 데에 필요한 특징들(예;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부유함)이 더 선호된 반면에, 결혼상대에서는 연애상대에서보다 “훌륭한 가정”을 갖는 데에 필요한 특징들(예; 집안일을 잘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을 원하고, 순결함)이 더 선호되었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되는 특징들과 배경변인들 간의 관계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되는 특징들을 다소 더 자세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여러 변인들을 관련지었다. 각각의 특징들의 순

표 5.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순위점수들의 평균치와 차이

특 성	연애상대	결혼상대	평균치간의 차이	차이의 의의도(t)(1)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2.94(1)	2.65(1)	.29	2.58*
신체적 매력기 있음	4.11(2)	6.65(5)	-2.54	18.23***
재미있는 성격	4.35(3)	6.16(4)	-1.81	13.22***
지적임(똑똑함)	5.39(4)	4.74(3)	.65	4.60***
건강함	6.17(5)	4.12(2)	2.05	15.30***
창조성있고 예술적임	7.02(6)	8.14(7)	-1.12	7.81***
돈벌기 능력이 좋음	8.08(7)	8.42(9)	-.34	2.12*
대학졸업자임	8.14(8)	8.25(8)	-.11	.75
성격이 태평함(또는 느긋함)	8.62(9)	9.31(11)	-.66	5.17***
집안이 부유함	8.64(10)	10.12(12)	-1.48	10.79***
순결함(즉 성경험이 없음)	8.87(11)	8.06(6)	.81	5.18***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	10.98(12)	10.62(13)	.35	2.44*
집안일을 잘함	11.07(13)	8.72(10)	2.35	16.22***
종교적임	11.65(14)	11.54(15)	.11	.96
자녀들을 갖기를 원함	13.03(15)	11.44(14)	1.60	11.88***

(1) df=483. * p<.05, *** p<.001.

()안의 숫자는 순위평균치들의 순위임.

위평균치들이 종속변인 측정치로서 그리고 여러 배경변인들의 범주들이 독립변인의 측정치로서 일원변량분석 되었으며, 각 변량분석에 대한 F비와 유의한 F비에서의 범주간 평균치들과 그 차이들이 표 6과 표 7에 제시되었다.

성별 연애상대와 아울러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 순위점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들이 성별요인에서 나타났다.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는 10개의 특징들이 성차를 보였으며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는 9개의 특징들이 성차를 보였는데, 차이있는 1개(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를 제외한 9개의 특징들이 모두 동일한 방향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있는 특징들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매력이 있고,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자녀들을 두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특징들을 더 선호한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지적이고, 돈벌이 능력이 좋고, 집안이 부유하고, 대학졸업자인 특징들을 더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Buss 등(1990)의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일치되었다. 특성들의 성질들을 종합하면, 남자는 “가정에 충실하는 정숙한” 여자의 특성들을 더 중시했고, 여자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있는” 남자의 특성들을 더 중시했다.

학년 학년의 변인은 연애상대의 4개의 특징들과 결혼상대의 4개의 특징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돈벌이능력과 순결함은 두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애상대 특징들에서는 집안이 부유함과 성격이 태평함에서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결혼상대에서는 신체매력과 자녀들을 원함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애상대의 선호특징들에서 학년간 차이가 유의했던 4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1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을 중시하고 성격태평함을 경시했고, 2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과 집안의 부유함을 경시했고, 3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과 집안의 부유함을 중시하고 순결함을 경시했으며, 4학년생들은 돈벌이 능력을 중시하고 순결함을 중시했다. 결혼상대의 선호특징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을 중시하고 신체매력을 경시했으며, 2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을 경

시하고 신체매력을 중시했으며, 3학년생들은 돈벌이능력을 중시하고, 순결함, 신체매력 및 자녀를 원하는 것을 경시했고, 4학년생들은 돈벌이 능력을 중시하고 순결함과 신체매력을 중시했다. 따라서 학년들간의 전체의 차이패턴들은 1학년과 3학년이 비슷하고 2학년과 4학년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학년에 따른 주기적 패턴들을 보였고 전자가 상대방의 외적 조건들(돈벌이능력과 집안이 부유함)을 중시한 반면에 후자는 상대방의 개인적 조건들(순결함과 신체매력)을 중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랑스타일점수들에서의 열정애와 이타애에서의 학년차이의 패턴과 일치되었다.

연령 연령의 변인은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에서 4개와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에서 4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조건에서 자녀를 원함과 신체매력에서 공통적으로 연령들 간에 차이가 있었고, 연애상대에서는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과 순결함에서 그리고 결혼상대에서는 대학졸업자와 집안이 부유함에서 연령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18-19세는 신체매력을 중시하고 자녀를 원함을 경시했고, 22-23세는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을 중시하고 순결함과 신체매력을 경시했으며, 24-25세는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을 경시하고 신체매력, 순결함 및 자녀를 원함을 중시했으며, 26세 이상은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을 중시하고 순결함을 경시하고 신체매력을 중간으로 중시했다. 따라서 18-19세는 주로 신체매력을 중시하고, 22-23세는 신체매력과 순결함을 경시하고, 24-25세는 신체매력, 순결함 및 자녀를 원함을 중시하고, 26세 이상은 다시 순결함을 경시하고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을 중시했다. 특히 대비되는 것은 22-23세와 24-25세인데, 전자에서는 외적조건(유전적 가문)이 중시되고 개인적 조건들(신체매력과 순결함)이 경시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외적 조건(유전적 가문)이 경시되고 개인적 조건들(신체매력, 순결함 및 자녀를 원함)이 중시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 18-19세는 외적조건들(대학졸업자와 집안부유)을 중시했고 개인적 조건들(신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의 평균치들과 F비율(1)

변인	N	(1) 매출	(2) 돈벌이 능력	(3) 집안 부유	(4) 건강	(5) 유전적 가문	(6) 친절·이해성	(7) 창조·예술적	(8) 종교적	(9) 순결	(10) 성격 태평	(11) 재미있는 성격	(12) 집안일을 잘함	(13) 자녀 원함	(14) 지적임	(15) 신체 매력
성별		F=55.71**	F=43.50**	F=16.16**	F=2.07	F=11.55**	F=2.72	F=4.80*	F=2.04	F=30.63**	F=3.27	F=3.79	F=7.56**	F=24.09**	F=12.64**	F=53.04**
남자	251	9.16	9.02	9.27	11.36	6.68				7.93			10.76	12.51	5.90	3.19
여자	220	7.01	6.98	7.94	10.54	7.39				9.92			11.48	13.63	4.80	5.16
학년		F=1.90	F=6.64**	F=3.91**	F=.56	F=1.28	F=2.61	F=2.28	F=.86	F=3.18*	F=3.12*	F=.25	F=1.25	F=2.03	F=2.06	F=1.78
1	54		7.57b	7.98ab						8.51b	9.89a					
2	181		8.60a	9.20a						8.53b	8.54b					
3	129		7.06b	7.91b						9.76a	8.68b					
4	93		8.71a	8.84ab						8.39b	8.12b					
연령		F=1.53	F=.51	F=2.03	F=.44	F=2.99*	F=2.18	F=.73	F=1.79	F=2.73*	F=.16	F=1.31	F=1.21	F=4.96**	F=2.03	F=5.31**
18~19	45					11.07ab				8.98ab				13.87a		3.36c
20~21	173					10.99ab				8.87ab				12.90bc		4.39ab
22~23	114					10.42b				9.43a				13.45ab		4.86a
24~25	91					11.66a				7.78b				12.19c		3.18c
26이상	50					10.61b				9.62a				13.36ab		3.63bc
종교		F=1.76	F=.76	F=1.23	F=.72	F=.34	F=.68	F=.40	F=45.09**	F=.47	F=2.96*	F=1.75	F=2.91*	F=4.11**	F=1.31	F=.77
없음	258								13.21a				10.75a	12.86a		
개신교	128								8.27b				11.58a	13.20a		
카톨릭	51								11.16ad				11.84a	13.90a		
불교	31								13.03a				10.68a	13.13a		
기타	5								13.00a				11.40a	9.80b		
형제자매수		F=1.05	F=.74	F=1.22	F=1.92	F=1.65	F=.96	F=.65	F=.10	F=.24	F=2.45*	F=.65	F=.85	F=.97	F=.16	F=.42
1명	11															
2명	86									5.73b						
3명	163									8.55a						
4명	106									8.94a						
5명	61									8.35a						
6명 이상	42									8.43a						
남자형제수		F=3.21*	F=3.12*	F=2.07	F=.89	F=1.63	F=.82	F=.07	F=.55	F=1.58	F=.76	F=2.22	F=1.51	F=1.20	F=1.20	F=2.99*
0명	43	6.72b	6.91b													4.67a
1명	165	8.36a	7.75ab													4.43a
2명	171	8.14a	8.36a													4.01ab
3명 이상	93	8.34a	8.57a													3.37b

변인	N	(1) 대출	(2) 돈벌이 능력	(3) 집안 부유	(4) 건강	(5) 유전적 가문	(6) 친질· 이해성	(7) 창조· 예술적	(8) 종교적 순결	(10) 성격 태평	(11) 재미있는 성격	(12) 집안일을 잘함	(13) 자녀 원함	(14) 지적임	(15) 신체 매력
여자형제수		F=3.18*	F=2.50	F=.39	F=1.26	F=.17	F=.71	F=.80	F=1.31	F=.89	F=.78	F=2.48	F=2.13	F=.69	F=3.21*
0명	68	8.87a													3.39b
1명	166	8.40ab													3.90ab
2명	122	7.89b													4.10ab
3명 이상	93	7.53b													4.75a
출생순위		F=1.38	F=2.76*	F=2.04	F=.71	F=2.08	F=.58	F=1.01	F=.15	F=.65	F=.82	F=1.91	F=.42	F=3.24*	F=1.07
1순위	145		8.18ab											5.30a	
2순위	118		8.08ab											5.13ab	
3순위	88		7.24b											5.93a	
4순위	61		9.12a											4.23b	
5순위 이상	56		7.86b											6.11a	
아버지와의 관계		F=1.33	F=.30	F=.34	F=3.41	F=1.70	F=1.44	F=.58	F=.18	F=.92	F=.40	F=.78	F=1.27	F=1.84	F=1.22
매우 좋음	75				5.32b										
좋은편	188				6.24ab										
보통	129				6.43ab										
나쁜편	58				6.91a										
매우 나쁨	11				5.09b										
사랑상대수		F=1.71	F=1.73	F=1.31	F=.35	F=.24	F=2.64	F=.80	F=1.42	F=.35	F=.97	F=.78	F=1.31	F=3.44*	F=5.75**
0	103													5.06b	4.07b
1	148													5.05b	4.90a
2	109													5.31b	3.68b
3 이상	115													6.27a	3.47b
현재 사랑 상대 유무		F=.04	F=.06	F=.04	F=5.77*	F=.19	F=.68	F=2.41	F=.13	F=.49	F=.43	F=.08	F=.23	F=.13	F=.33
있음	224				5.85										
없음	248				6.48										
고정애인 유무		F=.11	F=1.78	F=.27	F=6.05*	F=1.00	F=.50	F=5.09	F=.61	F=1.13	F=.38	F=.42	F=.89	F=.01	F=.23
있음	171				5.75			7.52							
없음	302				6.42			6.76							
지난날 데이트 유무		F=.50	F=2.97	F=1.79	F=3.75	F=.01	F=2.86	F=6.01*	F=.27	F=.22	F=.69	F=.38	F=1.25	F=.94	F=.43
있음	197							6.56							
없음	276							7.37							

변인	(1) N	(2) 대졸 문벌이 능력	(3) 집안 부유	(4) 건강	(5) 유전적 가분	(6) 친절· 이해성	(7) 창조· 예술적	(8) 종교적 경교적	(9) 순결	(10) 성격 태평	(11) 재미있는 정격	(12) 집안일을 잘함	(13) 자녀 원함	(14) 지적임	(15) 신체 매력
성경험 유무		F=4.47*	F=3.17	F=0.3	F=1.59	F=3.80	F=8.2	F=4.07*	F=2.88	F=4.3	F=1.61	F=1.12	F=1.75	F=2.10	F=4.07*
있음	121	8.64	7.36					12.28							3.61
없음	350	7.95	8.27					11.42							4.26
결혼예정연령		F=4.46**	F=1.80	F=2.52	F=5.3	F=3.4	F=8.19**	F=4.0	F=2.20	F=1.10	F=99	F=25	F=5.4	F=7.1	F=2.65*
26 이하	86	7.80bc					7.85a								4.35a
27~28	179	7.59c					7.41a								4.43a
29~30	131	8.80a					6.96a								3.58a
30 이상	58	8.66ab					5.12b								3.59a
자신의 신체매력도		F=1.83	F=1.06	F=1.93	F=65	F=1.60	F=8.9	F=72	F=1.41	F=74	F=4.31**	F=52	F=56	F=94	F=1.17
매우매력있음	12										7.17a				
다소매력있음	185										4.39b				
보통	219										4.23b				
다소매력없음	40										3.45b				
매우매력없음	10										4.00b				
동성친구수		F=71	F=83	F=3.36**	F=14	F=1.09	F=1.76	F=93	F=15	F=88	F=1.07	F=157	F=1.81	F=43	F=30
1명	94			6.64a											
2명	115			6.36a											
3명	128			6.17a											
4명	49			4.88b											
5명 이상	86			6.17a											
결혼예정연령		F=4.46**	F=1.80	F=2.52	F=53	F=3.4	F=8.19**	F=40	F=2.20	F=1.10	F=99	F=25	F=54	F=71	F=2.65*
26 이하	86	7.80bc					7.85a								4.35a
27~28	179	7.59c					7.41a								4.43a
29~30	131	8.80a					6.96a								3.58a
30 이상	58	8.66ab					5.12b								3.59a
자신의 신체매력도		F=1.83	F=38	F=1.93	F=65	F=1.60	F=8.9	F=72	F=1.41	F=74	F=4.31**	F=52	F=56	F=94	F=1.17
매우매력있음	12										7.17a				
다소매력있음	185										4.39b				
보통	219										4.23b				
다소매력없음	40										3.45b				
매우매력없음	10										4.00b				
동성친구수		F=71	F=83	F=3.36**	F=14	F=1.09	F=1.76	F=96	F=15	F=88	F=1.07	F=157	F=1.81	F=43	F=30
1명	94			6.64a											
2명	115			6.36a											
3명	128			6.17a											
4명	49			4.88b											
5명 이상	86			6.17a											

* p<.05, ** p<.01

(1) 알파벳 철자가 다른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상대의 특장들의 선호순위들의 평균치들과 F비율

변인	N	(1) 대출	(2) 돈벌이 능력	(3) 집안 부유	(4) 건강	(5) 유전적 기문	(6) 친절 이해성	(7) 창조·예술적	(8) 종교적	(9) 순결	(10) 성격 태평	(11) 재미있는 성격	(12) 집안인물	(13) 자녀 원함	(14) 지적임	(15) 신체 매력
성별	남자	F=82.37**	F=232.57**	F=29.89**	F=3.11	F=2.07	F=1.14	F=6.76**	F=0.00	F=53.84**	F=5.7	F=3.75	F=19.89**	F=46.92**	F=6.09**	F=111.69**
	여자	9.60	10.54	10.94			7.74	8.60		6.76		8.11	10.50	10.50	5.04	5.12
학년	1	F=2.27	F=17.26**	F=6.68**	F=1.38	F=94	F=41	F=2.80*	F=4.7	F=2.81*	F=5.7	F=71	F=6.7	F=4.18**	F=1.93	F=10.40**
	2		7.50b	8.95cb			8.68a			7.78ab			11.56ab			7.93a
	3		9.64a	10.84a			8.60a			7.77ab			10.79b			6.08b
	4		6.72b	9.43bc			8.50a			8.97a			12.09a			7.67a
연령	18~19	F=2.60*	F=1.67	F=3.28*	F=3.9	F=97	F=1.04	F=0.2	F=2.08	F=1.75	F=99	F=1.15	F=1.71	F=3.95**	F=1.54	F=9.01**
	20~21	7.28b		8.37b									12.65a			7.74a
	22~23	8.09ab		10.40a									11.12bc			7.05a
	24~25	8.03ab		10.16a									11.97ab			7.46a
종교	없음	F=61	F=55	F=1.50	F=1.82	F=72	F=1.47	F=2.17	F=69.82**	F=1.22	F=2.68*	F=1.48	F=2.35	F=99	F=1.97	F=1.66
	개신교								13.63a							
	카톨릭								7.42c							
	불교								10.41b							
남자형제수	0명	F=8.42	F=13.89**	F=5.89**	F=6.66	F=4.14**	F=1.50	F=4.3	F=98	F=6.21**	F=4.9	F=1.32	F=1.79	F=7.11**	F=2.12	F=9.19**
	1명	5.9b	5.73c	8.11b		9.51b				10.20a			12.70a			8.33a
	2명	8.10a	7.70b	10.06a		10.25ab				8.54b			12.06a			7.25b
여자형제수	0명	F=4.51**	F=6.24**	F=2.58	F=2.31	F=1.41	F=6.4	F=1.15	F=1.18	F=2.08	F=1.21	F=0.8	F=5.76**	F=3.92**	F=7.6	F=4.74**
	1명	9.04a	9.44a										7.80b	11.04b		5.56c
	2명	8.11ab	8.12bc										8.69b	10.91b		6.32bc
3명 이상	7.28	7.27c											8.46b	11.84ab		6.88ab
													9.68a	12.08a		7.52a

변인	(1) N	(2) 대출 본별이 능력	(3) 집안 부유	(4) 건강	(5) 유전적 기문	(6) 친절· 이해성	(7) 창조· 예술적	(8) 종교적	(9) 순결	(10) 성격 태평	(11) 재미있는 성격	(12) 집안일을 잘함	(13) 자녀 원함	(14) 지적인	(15) 신체 매력
아버지와의 관계		F=1.47	F=3.30	F=2.29	F=1.84	F=2.27	F=2.31	F=1.17	F=2.67	F=1.51	F=3.52	F=2.38	F=7.77	F=1.58	F=6.65
매우 좋음	77								8.27ab						
좋은편	189								7.97ab						
보통	131								7.64b						
나쁜편	58								9.59ab						
매우 나쁨	11								9.82a						
사랑상대수		F=88	F=2.04	F=2.04	F=71	F=03	F=1.37	F=51	F=61	F=3.18**	F=93	F=84	F=70	F=1.14	F=6.28**
0	104									10.06a					7.27a
1	148									8.64b					7.27a
2	110									9.24ab					6.50a
3 이상	114									9.54ab					5.49b
지난달 데이트 유무		F=4.74*	F=03	F=51	F=70	F=10	F=2.78	F=00	F=03	F=32	F=1.73	F=2.08	F=10.98**	F=4.41	F=29
있음	194	8.67											10.86		
없음	276	7.90											11.87		
성경험 유무		F=11.04**	F=91	F=1.23	F=1.20	F=16	F=4.66*	F=5.30*	F=2.15	F=1.22	F=2.37	F=5.38*	F=3.47	F=02	F=12.67**
있음	121	9.19					7.57	12.34				8.15			5.63
없음	354	7.90					8.39	11.26				8.93			7.01
결혼예정연령		F=6.41**	F=11.95**	F=2.45	F=3.76*	F=1.34	F=9.75*	F=15	F=2.41	F=46	F=29	F=2.43	F=11	F=53	F=8.51**
26이하	88	7.34b	6.62c		3.70b		9.40a								7.67a
27~28	180	7.73b	8.04b		3.88b		8.68a								7.19a
29~30	131	9.10a	9.28a		4.46ab		7.67b								5.75b
30이상	58	9.10a	9.88a		4.86a		6.53c								5.41b
신체 매력		F=1.62	F=1.51	F=3.28*	F=3.05*	F=1.44	F=81	F=84	F=1.66	F=26	F=2.51*	F=1.28	F=54	F=89	F=3.50**
매우매력있음	12		8.68a		4.75a						8.08a				5.50b
다소매력있음	183		9.48a		4.75a						6.44ab				6.32b
보통	221		10.58a		3.74a						5.88b				6.82b
다소매력없음	41		10.63a		4.27a						5.78b				6.76b
매우매력없음	10		10.20a		3.60a						5.00b				10.50a

* p<.05, ** p<.01

(1) 앞과셋 철자가 다른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

체매력과 자녀를 원함)을 경시했고, 24-25세는 외적 조건(대학졸업자)을 경시했고 개인적 조건들(신체매력과 자녀를 원함)을 중시했다. 특히 신체매력에 대해 24세 이상자들과 그 이하자들 간에 차이가 유의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18-19세는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에 대한 추상적인 “일반적 통념” 즉, 연애상대는 잘생겨야 되고 결혼상대는 대졸자이고 집안이 부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24-25세는 주로 두 조건들에서 모두 개인적인 “인간됨”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피험자들의 종교변인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특징들 중에서 종교적임에 유일하게 영향 주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종교적임에 대해 개신교와 카톨릭 학생들이 종교없음과 불교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으며,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종교적임에 대해 개신교, 카톨릭 및 종교없음과 불교의 세 범주의 학생들의 순으로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으며 이들 간의 차이가 유의했다.

형제자매수 이 변인은 연애상대의 선호특징들 중의 성격이 태평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1명인 학생들이 그 밖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남자형제수 이 변인은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대학졸업자임, 돈벌이능력 및 신체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대학졸업자임, 돈벌이능력, 집안이 부유함, 유전적 가문이 좋음, 순결함, 자녀를 원함 및 신체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남자형제가 있는자들이나 더 많이 있는자들이 없는자들(즉 여자들임)보다 대학졸업자임과 돈벌이능력에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고, 남자형제가 많을수록 신체매력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남자형제가 있는자들이나 더 많이 있는자들(즉 여자들임)보다 대학졸업자임, 돈벌이능력, 집안이 부유함, 유전적 가문이 좋음, 순결함에 더 낮은 순위를 부여한 반면에, 자녀

를 원함과 신체매력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여자형제수 여자형제수의 변인은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대학졸업자임과 신체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대학졸업자임, 신체매력, 돈벌이능력, 집안일을 잘함 및 자녀를 원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순위에서, 여자형제수가 2명과 3명이상이 없음(즉 남자들임)과 1명보다 대학졸업자임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고,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신체매력에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순위에서,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대학졸업자임과 돈벌이능력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한 반면에, 집안일을 잘함, 자녀를 원함 및 신체매력에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남자형제수와 여자형제수의 변인들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몇 개의 특징들의 순위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영향주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대학졸업자임에 대해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순위가 부여되고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된 반면에, 신체매력에 대해서는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되고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순위가 부여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대학졸업자임과 돈벌이능력에 대해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순위가 부여된 반면에,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되었고, 자녀를 원함과 신체매력에 대해서는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가 부여되고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순위가 부여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이 변인은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건강함과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순결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학생들이 나쁜 편인 학생들보다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건강함에 유의하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나쁜 학생들이 보통인 학생들보다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순결함에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다.

경험한 사랑상대수 이 변인은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지적임과 신체매력의 순위들에 영향주었고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성격이 태평함과 신체매력의 순위들에 영향주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사랑상대수가 3명 이상이 그 이하보다 지적임에 대해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으며, 사랑상대수가 1명보다 없거나 2명 및 3명 이상이 신체매력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서, 사랑상대수가 1명이 없거나 2명이나 3명 이상보다 성격이 태평함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으며, 사랑상대가 3명인자들이 그 이하 자들보다 신체매력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랑상대수가 많을수록(즉 신체적 매력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임) 지적임과 성격이 태평함과 같은 내면적 특징들을 경시하고 신체매력과 같은 외면적 특징을 더 중시했다.

현재 사랑상대의 유무 연애상대의 특성들 중의 건강함에 대해 현재 사랑상대가 있는자들이 없는자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고정적 애인의 유무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건강함과 창조적이고 예술적임에서 고정적 애인이 있는자들이 없는자들보다 전자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고 후자에 대해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다.

지난 달의 데이트 유무 연애상대의 특성들 중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임에 대해 지난 달에 데이트가 있었던자들이 없었던자들보다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고, 결혼상대의 특성들 중에서 지난 달에 데이트가 있었던자들이 없었던자들보다 대학졸업자임에 대해 더 높은, 그리고 자녀를 원함에 대해 더 낮은 순위를 부여했다.

성경험 유무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에서,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대학졸업자임과 종교적임을 더 경시했고 신체매력과 돈벌이능력을 더 중시했다. 결혼상대의 특성들 중에서,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대학졸업자임과 종교적임을 더 경시하고, 신체매력, 창조적이고 예술적임 및 집안일을 잘함을 더 중시했다.

결혼예정연령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2개와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5개에서 결혼예정연령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졸업자임과 창조적이고 예술적임은 두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대학졸업자임에서 27-28세 집단이 29-30세 집단보다 더 높은 순위를 두었으며, 창조적이고 예술적임에서는 30세 이상의 집단이 그 이하의 연령집단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두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대학졸업자임, 돈벌이 능력, 건강에서는 결혼예정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둔 반면에, 창조적이고 예술적임과 신체매력도에서는 결혼예정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두었다.

신체매력도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신체적 매력이 있음과 재미있는 성격에서 자신이 매우 매력적이고 반응한자들이 그 밖의 반응자들보다 전자에 대해 더 높은 순위를 두었고 후자에 대해 더 낮은 순위를 두었다.

동성친구수 연애상대의 특징들 중의 건강함에 대해 친구수가 4명인 학생들이 그 밖의 학생들보다 건강함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영향이 없었던 변인들은 연애상대와 아울러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에 영향이 없었던 변인들은 집안분위기,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자기에 대한 태도(자기존중) 및 지난 달의 데이트 빈도수이었다.

사랑스타일들의 점수들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순위점수들 간의 관계

사랑스타일들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사랑스타일상의 총점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순위점수들이 상관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열정에점수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 특징들의 선호점수들 간의 상관은 각각 6개가 유의했는데, 두 종류의 상대의 특징들에서 4개가 공통적으로 유의했다. 4개의 공통적 특징들에서 집안일을 잘함, 자녀를 원함 및 신체매력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재미있는 성격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통적 상관들 외에도,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과 지적임이

표 8. 사랑태도척도 총점들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바람직스러운 특성의 순위점수들 간의 상관(1)

상대의 특성	열정애 (Eros)	게임애 (Ludus)	친구애 (Storge)	실용애 (Proagma)	미혹애 (Mania)	이타애 (Agape)
1. 대학졸업자임	-.03 (-.09)	.09 (.16)**	-.03 (-.04)	.06 (.10)*	-.01 (-.01)	-.22** (-.21)**
2. 돈벌이능력이 좋음	.01 (-.10)*	.21** (.18)**	-.01 (-.01)	.11* (.06)	-.08 (.04)	-.26** (-.31)**
3. 집안이 부유함	.02 (.02)	.30** (.37)**	-.06 (-.07)	.08 (.12)*	.12* (.13)**	-.24** (-.30)**
4. 건강함	.03 (.11)*	-.18** (-.09)*	-.07 (.02)	.01 (.02)	-.01 (-.01)	.07 (.03)
5. 유전적으로 가문이 좋음	.01 (.01)	.11* (.12)*	-.07 (-.02)	.07 (.14)**	.05 (.07)	-.11* (-.11)*
6.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09* (-.01)	-.12* (-.14)**	.12* (.06)	-.05 (-.08)	-.09 (-.05)	.02 (.05)
7. 창조성 있고 예술적임	.04 (.02)	-.09 (-.08)	.01 (.10)*	-.20** (-.21)**	-.01 (.00)	.09 (.10)*
8. 종교적임	.05 (.02)	-.13** (-.12)*	.07 (.05)	.05 (.06)	.02 (.01)	.20** (.14)**
9. 순결함(즉, 성경험이 없음)	.09 (.08)	-.11* (-.10)*	.00 (-.01)	.05 (.02)	.08 (.01)	.17** (.15)**
10. 성격이 태평함(또는 느긋함)	-.05 (-.07)	-.02 (-.08)	.01 (.01)	-.13** (-.17)**	-.06 (-.06)	.05 (.12)*
11. 재미있는 성격	-.13** (-.12)*	.04 (-.08)	.11* (.03)	-.10* (-.20)**	-.01 (.06)	.02 (.00)
12. 집안일을 잘함	.14** (.10)*	-.07 (-.04)	.05 (.10)*	-.11* (.03)	-.06 (-.04)	.16** (.08)
13. 자녀를 갖기를 원함	.11* (.12)*	-.11* (-.09)	.02 (.02)	-.03 (-.01)	.02 (-.04)	.26** (.27)**
14. 지적임(또는 똑똑함)	-.14** (-.08)	-.13** (-.14)**	.02 (-.04)	-.01 (.05)	-.09 (-.06)	-.07 (-.04)
15. 신체적 매력이 있음	.10* (.13)**	.19** (.08)	-.05 (-.10)*	.05 (-.06)	.01 (.09)	.03 (.14)**

(1) 사랑태도척도 총점과 연애상대 특성의 순위점수 간의 상관은 위 줄에 제시되었고, 결혼상대특성의 순위점수 간의 상관은 아래 줄에 ()안에 제시되었다. 연애상대 특성의 순위점수의 N=420이고, 결혼상대특성의 순위점수의 N=423임.

* p<.05, ** p<.01.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 건강함이 정적 상관을 그리고 돈벌이능력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열정애점수가 높은 것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성들에서 가정중심성(예; 집안일을 잘함, 자녀를 원함, 건강함)과 신체매력이 중시되고 사교적 즐거움(예; 재미있는 성격, 친절하고 이해성있음)과 개인적 능력(예; 지적임, 돈벌이능력)의 특징들이 경시되는 것과 관련있었다.

게임애점수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점수들 간의 상관은 각각 10개와 9개가 유의했는데, 두 종류의 상대의 특징들에서 8개가 공통적으로 유의했다. 8개의 공통적 상관들에서, 집안이 부유함, 돈벌이능력 및 유전적 가문이 좋음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건강함, 친절하고 이해성있음, 종교적임, 순결함 및 지적임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통적 상관들 외에도, 게임애점수는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신

체매력과 정적 상관율, 그리고 자녀를 원함과 부적 상관율을 보였으며,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 대학졸업자임과 정적 상관율을 보였다. 따라서, 게임애접수가 높은 것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로써 공통적으로 경제적 상태(예; 집안이 부유함, 돈벌이능력)와 사회적 지위(유전적 가문이 좋음)가 중시되고 가정적 및 개인적 성실성(예; 건강함, 지적임, 종교적임, 순결함)과 친밀성(예; 친절하고 이해성있음)이 경시되는 것과 관련있었다. 특히 게임애접수는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열정요소(예; 신체매력)가 강조되고 가정적 요소(예; 자녀를 원함)가 경시되며,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의 외적 조건인 사회경제적 요소(예; 대학졸업자임)가 중시되는 것과 관련있었다.

친구애접수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점수들 간의 상관은 각각 2개와 3개가 유의했으며, 두 종류의 상대의 특징들과 공통적인 상관은 없었다. 친구애접수는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친절하고 이해성있음과 재미있는 성격과 정적 상관율을 보였고,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 창조적이고 예술적임과 집안일을 잘함(즉, 가정적 즐거움 요소들임)과 정적 상관율, 그리고 신체매력(즉 열정요소임)과 부적 상관율을 보였다.

실용애접수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점수들 간의 상관은 각각 5개와 6개가 유의했는데, 두 종류의 상대의 특징들에서 3개가 공통적으로 유의했다. 공통적 상관들에서 정적 상관은 없었으며 모두가 부적 상관이었다. 부적 상관들은 창조적이고 예술적임, 성격이 태평함 및 재미있는 성격의 특징들에서 나타나서 개인적인 “비경제적 특징들”이 경시되었다. 공통적 상관들 외에도, 연애상대의 특징들에서 돈벌이능력이 정적 상관율, 그리고 집안일을 잘함이 부적 상관율을 보였고, 결혼상대의 특징들에서 대학 졸업자임, 집안이 부유함 및 유전적 가문이 정적 상관율을 보였다. 따라서 실용애접수가 높은 것은 관계의 개인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더 큰 관련이 있었다.

미혹애접수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점수들 간의 상관은 6개 사랑스타일들 중에서 가장 적은 유의한 상관율을 보였는데, 이 점수는 집안이

부유함과 유일하게 유의한 공통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구별되는 상관도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혹애접수는 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고려와 연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타애접수는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점수들과 각각 8개와 10개가 유의한 상관율을 보였으며, 두 종류의 상대의 특징들에서 7개가 공통적으로 유의했다. 공통적으로 상관이 유의했던 7개의 특징들은 자녀를 원함, 종교적임 및 순결함이 정적 상관율, 그리고 돈벌이능력, 집안이 부유함, 대학졸업자임 및 유전적 가문이 좋음이 부적 상관율을 보였다. 공통적 상관들 외에도, 연애상대에서 집안일을 잘함이 정적 상관율을 보였고, 결혼상대에서 신체매력, 성격이 태평함 및 창조적이고 예술적임이 정적 상관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타애접수는 개인적 및 가정적 성실성(예; 종교적임, 순결함, 자녀를 원함, 집안일을 잘함)과 정적 관련이 있었고, 경제사회적 지위(예: 돈벌이 능력이 좋음, 집안이 부유함, 대학졸업자임, 유전적 가문이 좋음)와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결혼상대에서는 대인관계적 및 열정적 측면들(예; 성격이 태평함, 창조적이고 예술적임, 신체매력)이 부가적으로 관련있었다.

논 의

사랑스타일들과 관련 변인들

본 연구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사랑스타일척도에서 사용된 47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이 확인했던 6개 요인을 추출했으며 1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이 해당되는 요인에 모두 가장 큰 부하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서 동일한 사랑스타일 요인들을 보인 것은 문화들 간에 또는 적어도 문명화된 문화들 간에 사랑 경험들이 공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타애요인(12.9%)과 친구애요인(4.8%)에서 Hendrick 부부의 연구결과(각각 13.2%와 4.4%)와 거의 비슷한 변량들을 발견한 것은 이 두 요인이 문화들 간에 공통성이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간에 사랑스타일 요인들의 차이도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의 미혹애요인(7.7%)과 열정애요인(7.3%)의 변량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변량들(각각 5.0%와 5.2%) 보다 더 큰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의 실용애요인(6.3%)과 게임애요인(3.8%)의 변량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변량들(각각 8.2%와 7.6%) 보다 더 작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미혹애적-불안적이고 열정적 차원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인간관계의 특징들의 한 단면일 수 있다. 미혹애적-불안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이 “정”이나 정서적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고 논리적이고 게임적인 것이 합리주의적인 것을 대표한다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징들은 이전의 연구들이나 주장들과 일치하고 있다(예; 최상진, 1993, 1994; 이수원과 이현남, 1993).

사랑스타일이나 요인들에서의 문화차는 특히 성별 변인의 효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endrick 부부의 미국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게임애적인 반면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친구애적이고, 실용애적이고, 미혹애적이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 결과와 매우 다르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열정애적이고 이타애적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적 요인이 사랑스타일들이나 애정패턴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며, 특정 문화에서 얻은 연구결과들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랑스타일의 점수와 여러 배경변인들과의 관련은 성별을 포함한 14개 변인들에서 유의했고 7개 변인들에서 유의치 못했다. 많은 변인들이 사랑스타일에 관련있다는 것은 사랑스타일들이 개인적, 대인관계적 및 상황 변인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랑스타일들에 관련있는 변인들 중에서 다소 더 관심을 끄는 것들은 학년이나 연령 변인, 남자나 여자 형제수 및 자신의 신체매력도지각이다. 우선적으로, 학년변인과 연령변인에 따른 사랑스타일의 특

징은 매우 일치되게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동일한 패턴들을 보였고 게임애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연령패턴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더 낮고 게임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이성관계의 학년간 변화를 시사해 주는 데, 1학년 때에는 이성상대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열정애와 이타애 점수가 높고 게임애점수가 높다가, 2학년 때에는 이성상대와의 경험을 비로소 갖게 되어서 점수들이 역전되었다가, 3학년 때에는 이성상대와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으로 다소 침체되었다가, 4학년 때에 비로소 이성상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관심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형제수인데, 남자 형제가 많을수록 이타애점수가 높은 반면에, 여자 형제가 많을수록 이타애점수가 낮고 실용애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사회화나 영향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 변인들의 효과는 남자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주는 것이고(즉, 이타애적이어야만 된다) 여자는 상대의 특징들을 잘 구별해서 사귀어야만 된다(즉, 실용애적이어야만 된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이 남자와 여자 형제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에서 더 많이 논의되고 강조된 데에 기인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매력도가 대인매력연구들에서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따라서 사랑경험에 긍정적으로 관련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본연구의 결과에서 자신의 지각된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열정애점수가 더 높았고 매우 매력없는 집단에 비해 그 밖의 집단들의 이타애점수도 또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매력도 지각이 사람들이 사랑경험의 양식들에도 영향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선호특징들과 관련변인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바람직한스러운 특징들의 순위는 대체로 유사했다. 상위 순위의 선호특징들은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신체매력, 재미있는 성격, 지적

임 및 건강함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Buss 등(1990)의 국제적 표본의 결과들과 유사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이성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지지를 더해 준다.

그렇지만,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 간의 차이도 15개 중의 13개 특징들에서 유의했다. 연애상대에서는 결혼상대에서보다 “즐거운 관계”를 갖는 데에 필요한 특징들(예;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부유한)이 선호되는 반면에, 결혼상대에서는 “훌륭한 가정”을 갖는 데에 필요한 특징들(예; 집안일을 잘하고, 건강하고, 자녀를 원하고, 순결한)이 선호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이성관계의 목표나 성질에 따라 선호되는 특징들이 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성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문화 간에 공통성이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시대변화(탈산업화시대의 도래),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연령, 결혼형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에 관련있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21개 변인들 중에서 16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상대와 결혼상대 특징들의 선호도에 관련있는 많은 변인들이 있었지만, 앞 절에서처럼 성별, 학년이나 연령 및 남자나 여자 형제수에 관한 결과들이 주의를 끌고 있다. 우선적으로, 성별변인은 이성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에 대해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으며 Buss 등(1990)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했다. 전반적으로, 남자는 “가정에 충실하는 정숙한 여자의 특징들”을 선호한 반면에, 여자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있는 남자의 특징들을 선호했다. 이러한 성차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들이나 그 고정관념들에 관련이 큰 것으로서, 앞으로의 시대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년이나 연령 변인들의 영향은 사랑스타일들의 패턴(2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열정애와 이타애에서 더 높았고 게임애에서 더 낮았음)에서와 비슷하게,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에서의 특징들의 선호도에서도 특징적 패턴들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학년과 3학년은 돈벌이능력을 중시하고 신체매력이나 순결함을 경시한 반면에 2학년과 4학년은 돈벌이 능력이나 집안이 부유함을 경시하고 신체매력이나 순결함을 중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 절의 사랑스타일들의 학년이나 연령패턴과 같이, 학년이나 연령에 따른 이성관계의 발달패턴과 밀접하게 관련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형제수도 또한 이성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에 독특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남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대학졸업자와 돈벌이능력을 경시하고 신체매력을 중시한 반면에 여자형제수가 많을수록 대학졸업자와 돈벌이능력을 중시하고 신체매력, 집안일을 잘함 및 자녀를 원함을 경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역할들이나 그 고정관념들에 대한 가정내의 강조나 전달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사랑스타일들과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 간의 관계

6개의 사랑스타일들은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호도와 상이한 상관을 갖고 있었다. 열정애가 높은자들(또는 더 강한 동의를 보인자들은) 가정적 특징들과 신체매력을 중시하고, 사교적 즐거움이나 개인적 능력의 특징들을 경시했으며, 게임애가 높은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시하고 가정적 및 개인적 성실성과 친밀성을 경시했으며, 친구애가 높은자들은 친구관계를 친밀하게끔 만들 수 있는 특성들을 중시했다. 실용애가 높은자들은 비경제적 특징들(창조적이고 예술적임, 성격이 태평함 및 재미있는 성격)을 경시했으며, 미혹애가 높은자들은 대체로 이성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했으며, 이타애가 높은 자들은 개인적 및 가정적 성실성과 대인적-열정적 특징들을 중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특징들을 경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랑스타일들이 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랑의 요소 중에 사랑하겠다는 의사결정과 장기적 개입이 있다는 주장(Sternberg, 1988)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사랑의 요소로서 이성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사랑의 성분, 사랑스타일, 사랑척도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들은 사랑의 순수한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특성들 이외에도,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도를 포함시켜야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 · 이헌남(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pp.61-80).
- 차재호 · 원호택 · 구정숙 · 정지원(1988). 서울대생의 집단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pp 3-2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rscheid, E., & Walster, E.(1974). A little bit about love. In T. L.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hm, S. S.(1985).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Random House.
- Brown, R. A.(1994). Romantic love and the spouse selection criteria of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183-189.
- Buss, D. M.(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i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 Barnes, M.(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D. M. et al.(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5-47
- Cameroon, C., Oskamp, S., & Sparks, W.(1977). Courtship American style: Newspaper ads. *Family Coordinator*, 26, 27-30.
- Davis, K. E., & Latty-Mann, H.(1987). Love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A contribution to validit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409-428.
- Davis, K. E., & Todd, M.(1982). Friendship and love relationships. In K. E. Davis (Ed.), *Advances in descriptive psychology* (Vol. 2, pp. 79-122). Greenwich, CT: JAI Press.
- Davis, K. E., & Todd, M. J.(1985). Assessing friendship: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description. In S. Duck and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verly Hills, Calif: Sage.
- Dion, K. L., & Dion, K. K.(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Feingold, A.(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e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2, 125-139
- Harrison, A. A., & Saeed, L.(1977). Let's make a

- deal: An analysis of revelations and stipulations in lonely hearts advertis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257-264.
- Hatfield, E., & Sprecher, S.(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atfield, E., Traupmann, J., Sprecher, S., Utne, M., & Hay, J.(1985). Equity and intimate relationships: Recent research. In W. Ickes(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 New York: Springer-Verlag.
- Hatkoff, T. S., & Lasswell, T. E.(1979). Male-fema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eptualizing love. In M. Cook & G. Wilson (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xford: Pergamon Press.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S.(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Hendrick, C., Hendrick, S. S., Foot, F. H., & Slapion-Foote, M. J.(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Hendrick, S. S., & Hendrick, C.(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 502-526.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1988). Romantic relationships: Love, satisfac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980-988.
- Hinde, R. A.(1984). Why do the sexes behave differently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Psychology*, 1, 471-501.
- Hofstede, D.(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 Park. CA: Sage.
- Homans, G. C(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elly, H. H.(1983). Love and commitment. In H. H. Kelly, E. Berscheid, A. Chirstensen,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Kelling, G. W.(1979). *Blind mazes; A study of love*. Chicago: Nelson-Hall.
- Kenrick, D. T., Groth, G. E., Trost, M. R. & Sadlla, E. K.(1993). Integrating evolutionary and social exchange perspectives on relationships: Effects of gender, self-appraisal, and involvement level on mate selection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51-969.
- Kenrick, D. T., & Keefe, R. C.(1992) Age differences in mates reflect differences in human reproductive strateg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5, 75-113.
- Kenrick, D. T., Sadalla, E. K., Groth, G., & Trost, M. R.(1990). Eveoution, traits, and the stages of human courtship: Qualifying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58, 97-116.
- Kenrick, D. T., & Trost, M. R.(1989). Reproductive exchange model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Putting proximate economics in ultimate perspective. In C. Hendric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 pp. 92-118). Newbury Park, CA: Sage.
- Lasswell, T. E., & Lasswell, M. E.(1976). I love you but I'm not in love with you.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8, 211-224.
- Lee, J. A.(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 New Press.
- Powers, E. A.(1971). Thirty years of research on ideal mate characteristics: What do we kno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 207-215.
- Rosenblatt, P. C.(1974). Cross cultural perspective on attraction. In T. L.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pp. 79-9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ubin, Z.(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 Rubin, Z.(1973).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Rubin, Z.(1974). From liking to loving: Patterns of attr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In T. L. Huston (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Sadalla, E. K., Kenrick, D. T., & Vershure. B.(1987). Dominance and heterosexu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30-738.
- Schachter, S., & Singer, J. E.(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69, 379-399.
-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rnberg, R. J.(1987). Liking versus loving: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 Symons, D.(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ownsend, J. M.(1989). Mate selection criteria: A pilot study. *Ethology and Sociobiology*, 10, 241-253.
- Tzeng, O. C. S.(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Westport: Praeger.
- Walster, E., Aronson, V., Abrahams, D., & Rottman, L.(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508-516.

Love Styles and Partner Selection Criteria of Korean College Students

Dae-Shik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78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to identify the love styles,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date and marriage partners, effects of background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ove styles and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artners. Although it was found that Hendrick and Hendrick's(1986) six love styles were also presented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college students showed greater variances in Mania and Eros factors and lesser variances in Pragma and Ludus factors. Fourteen background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ove styles.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date and marriage partners were similar and were roughly same as the results of Buss et al.(1990).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date and marriage partn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in 13 characteristics. Sixteen background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date and marriage partner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love styles and preferred characteristics. It was proposed that love styles should include as an component the preferences of partners characteristics.